

# 최태원 “飲水思源 되새기며 사회환원 디자인하는 인재되길”

(SK 회장)

(음수사원: 근본을 잊지 않음을 일컫는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위커히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향후 미래 인재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설립한 교육재단으로, 최 회장은 제 2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길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위커히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론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인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할지 자신이 디자인하고 가치관과 끈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학의 획일적인 교육이나 박사 학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단은 시험을 봐서 장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스스로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가치관·끈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뽑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故) 최종현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재단 설립 50년간 지원받은 인재 수 5128명 최 회장 자녀 최윤정·인근 남매 참석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 등 매진” 고등교육재단, 플랫폼 확장 도모

선대 회장이 1974년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설립한 교육재단이다. 최 회장은 1998년부터 제2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50년간 지원 받은 인재의 수는 5128명에 달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초대 이사장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AI 영상으로 살아난 최종현 선대회장은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마음에 씨앗을 심어라’라고 했는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꿈을 가지라는 뜻도 있었지만 조금씩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뜻이었다”며 “우리는 자네가 심은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비전 발표도 진행됐다.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대표는 “나무를 가꾸듯 사람을 키우고 인재의 숲으로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는 재단의 새 미션과 함께 “시대를 이끄는 K

FAS형(Knowledge-driven, Forward-thinking, Action-oriented, Socially-conscious)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용적 지식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며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에 더해 플랫폼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최 회장은 아이디어를 직접 설명하며 추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최종현학술원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과학기술 분야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연구원을 통해 학문적인 내용을 현실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FAS형 인재는 대학제적 지식을 갖추고 미래 시대를 선도하며 확장한 사고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며 협력과 창의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 기여를 통한 포용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인재를 뜻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재열 초대 사무총장, 박인국 전 사무총장, 최병일 전 사무총장 등 재단 및 SK 관계자, 장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최 회장의 자녀인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과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도 참석해 최 회장과 밝은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B 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금융을 잘안다 보험을 잘한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다**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녀보험·태아보험

여행자보험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KB 손해보험**

## 반도체 악화, 트럼프發 위기 기업 체감경기 또 얼어붙어

한은, 기업경기조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또다시 얼어붙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업황이 악화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제조업 기업들의 경영애로 배경에 ‘환율’을 응답한 비중은 2년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CBSI 90.6 전달보다 2p ↓**  
**내달 전망치 90 밑도는 88.9 예상**  
**제조업 경영애로 ‘내수부진’ 26%**  
**불확실한 경제상황 18% 등 나타나**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대비 0.6포인트(p) 하락한 91.5를 기록했다.

C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0.6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p 하락했다. 제품재고(-1.1p)와 자금사정(-0.8p)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0월(90.5)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다음달 전망치는 90을 밑돈 88.9

로 예상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에 ‘환율’을 응답한 비율은 10월 3.7%에서 11월 6.7%로 증가했다. 환율이 경영애로사항 상위 6개안에 들어간 것은 2022년 11월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환율 응답 비중 역시 2022년 11월(8.3%) 이후 가장 크다.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6.0%)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 18.2% ▲수출부진 9.1% ▲인력난·인건비상승 9.0% ▲원자재 가격상승 7.6%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4p 상승한 92.1을 기록하면서 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채산성(+0.1p)과 매출(+0.3p)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달 전망치는 전달 전망한 89.2보다 1.1p 상승한 90.3으로 집계됐다.

비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0.3%) ▲불확실한 경제상황(18.8%) 인력난·인건비상승(14.5%) ▲자금부족(9.2%) 순이었다.

가계와 기업의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총체적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0.2p 오른 92.7을 기록했다. E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 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를 반영한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3.8로 전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